

이제는 계면쩍은 옛이야기

첫책 「非純粹의 宣言」이 나왔을 무렵

柳宗鎬

문학평론가

벌써 회고담을 끄적일 나이가 되었는가 하고 계면쩍은 생각이 드는 한편 우울한 후회를 금할 수 없다. 여러가지 뜻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상상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헛짚게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재미없는 기록이어나 적어두자는 생각이 들었다.

약력이 필요하다며 대라고 할 때 이른바 '저서'의 항목에 「非純粹의 宣言」을 으레히 꼽아왔다. 첫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펴본 일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책이 나온 직후에야 물론 소중하게 생각했겠지만 벌써 햇수로 30년전 옛날이다. 한편 가지고 있는 책을 모처럼 꺼내보았는데 발행 날짜가 확실치 않다. 1962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달과 날짜는 묘연하다. 책이 나온 후 상당한 권수를 기증용으로 받았는데 지금 그때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안팔리는 책을 계속 보관하고 있던 출판사측에서 본래의 마지막장을 떼어버리고 1975년 운운하는 것을 붙여서 시장에 내놓은 것을 한권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머리말 끝에 1962년 1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분명히 적혀 있으니가 그해 연말에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 잡지에 냈던 글 16편과 신문에 냈던 짤막한 글이 8편 들어 있고 구식 4·6판에 333페이지 짜리다. 그때만 하더라도 세로쓰기이고 한자도 많이 섞여놓고 있다. '序'라고 해서 앞머리에 당자가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청주서 지내며 우편으로 교정 보

"자신에 대한 환상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옳건 그르건, 그러나 자기가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淸書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 점만은 양보하고 싶지 않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전혀 호의에 의한 것이다. 新丘의 문우들 그리고 이종익사장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도 고인이 되신 李鍾翊사장의 친구문화사는 당시 관철동에 있었다. 아래층이 물물점인 이층집의 이층을 쓰고 있었다. 빼껴덕거리는 층계를 올라야 했다. 국문학총서와 영문학총서를 냈던 친구문화사는 그후 '전후문학전집'이라는 외국작품 번역책을 내서 독자 확보에 성공하였고, 빈한했던 당시 출판계에서는 분명 떠오르는 별이었다. 이때 친구에서 기획을 맡아서 시인 辛東門형이 일하고 계셨고 또

첫 평론집 「비순수의 선언」은

2천부를 찍었는데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

그래도 친구문화사쪽에서는

덤핑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창고에

보관해 두었으니 고맙기 이를 데 없다.

20년이 훨씬 지나서 '북페이'란 것을

할 때 한권 샀다는 얘기를

신문사에 있는 조우석씨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쯤되면 장기판매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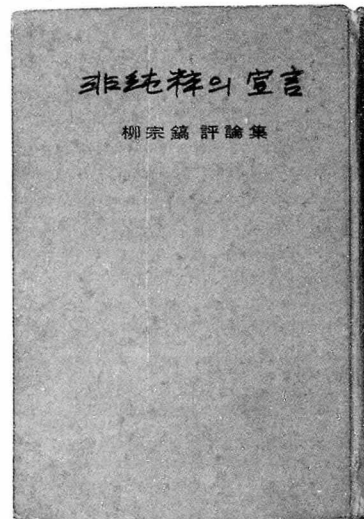
기록이 아닐까 한다.

한 시대의 선비이자 奇才였던 閔丙山형(그리고 보니 이른 또한 고인이 되셨다!)도 거기서 일하셨다.

어쨌건 변변치 못한 후배를 격려해주자는 뜻에서 辛詞伯이 발설해서 책을 내주기로 한 것이었다. 머리말에서 글벗이라고 한 것은 실상 위의 두분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었다.

당시 나는 청주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우편으로 교정지가 오면 고쳐보내곤 했는데 몇번 그랬지만 지금 보니 교정면에서도 불찰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막상 교정이 다 끝났을 즈음해서 이종익사장이 새로운 권고를 해왔다. 글속에 중간제목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간제목을 적어넣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하였다. 책속에 수록된 글에는 처음부터 중간 소제목을 붙인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붙이지 않은 것이 더 많았고 또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였다. 백작이 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도 못한 70장짜리 정도에 소제목을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무엇인가 경박해보였다. 나는 나대로 소감을 얘기했지만 친구문화사의 주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꼭 붙여야 된다는 것이었다. 호의와 배려를 앞세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와서 소제목을 다는데 펍 짜증스러웠던 일이 기억난다. 어쨌건 이 책에 붙여진 많은 소제목이 억지로 붙인 것이고 내 자신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러한 취향의 강요는 출판계나 저널리즘에서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내부의 글을 데스크에서 바꾸고 고



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당연한 일이기까지 하다. 외부에서 받아들인 글에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히 월권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남이 요량해서 적어놓은 단락을 마구 부숴서 갈라놓거나 제목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역설하는 한편으로 이렇게 타인에 대한 결례를 일삼는 모순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난 세월동안 자기에게 부과해서 일관성 있게 실천해온 것이 있다면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말 적어놓기와 단락 있는 글을 쓰자는 것이다. 단락의 개념이 성립 안되게 마구 잘라낸 글을 보면 불성실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짤막한 글의 경우 마구 잘라내버려서 단락을 부숴놓는 일이 예사인 것이다.

신동문씨 주선으로 친구문화사서 출판

옛얘기로 돌아가, 얘기가 되고부터 근 일년이 지난 후 책이 나오게 되었다. 혹 마음에 드는 장정 그림같은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말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출판사쪽에 맡겨 두었다. 그 쪽으로 어두운 탕도 있었지만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고속버스가 생기기 이전이라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나들이는 시간이 걸리는 놀음이었다.

책이 나온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질지도 좋고 그런대로 하드 커버여서 흡족한 기분이었다. 다만 겉표지가 너무 얇고 또 장정이 개성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기억된다. 책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시인이며 일본문학 번역을 하신 柳宗鎬(이분이 이용악의 「오랑캐꽃」

후기에 나오는 유정이다.)이 題字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책내기가 비교적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래서 책을 내는데 힘써준 분 등이 주선하여 소공동에 있었던 '호수'란 그릴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쟁쟁한 분들도 많이 참석했었다. 고인이 되신 李軒선생이 축전을 보내주셨고 白鐵선생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셨다. 그 자리에서 거명을 받고 李浩哲형이 우인 대표 비슷하게 역시 축사를 해주었는데 본인은 지금쯤 잊어버리고 있을 것이다. 그림과 화분 몇개까지 받았는데 시골에 사는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 서울에 남겨두었지만 화분 하나를 孫世一형에게 억지로 떠맡기다시피한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조그만 일을 생생히 또 모조리 간직하는 것이 내 망령된 기억력의 슬픈 생리이다.)

책 내곤 출판기념회도 가저

책이 나오자 외국문학쪽의 呂石基, 金鎮萬, 鄭明煥선생이 서평을 써주셨고 문단쪽에서는 徐基源·朴喜隨형이 써주었다.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 내 삶속에서 참으로 고마웠던 분이 한 두분이 아닌데 평소에는 잊고 있는 것이다. 또 격려받은 것에 대한 보답도 글로서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자괴감이 끝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定冠詞가 붙는 한편의 책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책은 2천부를 찍었는데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 그래도 친구문화사쪽에서는 덤핑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창고에 보관해 두었으니 고맙기 이를 데 없다. 20년이 훨씬 지나서 '북·페이'란 것을 할 때 한권 구득했다는 얘기를 신문사에 있는 趙佑石씨에게 들은 적이 있다. 이쯤되면 장기판매로서는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